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7

2015.11.29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오늘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
는 것이 아니나

미가 6:8

오늘의 주요기사

- 2 사역박람회 결과
- 3 목회칼럼
- 4 창립27주년 특집 공지

교회 일정

12/1(화) 늘푸른대학 2학기 종강
12/6(주) 성찬주일
12/9(수) 겨자씨인도자 종강
12/13(주) 새생명축제
12/20(주) 성탄가족예배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줄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겨자씨와 함께하는 2015 새생명축제. 이번주부터 대림절 절기이다. 성탄절까지, 주님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마련된다.

대림절, 주님 탄생 기리는 절기

성탄절 전 4주간, 주님 뜻 기리는 여러 행사 마련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
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
리라" (이사야 7:14). 11월 29일은
2015년의 대림절 절기가 시작하
는 날이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
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이
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불
을 밝히고, 세상의 구원을 이룩하
신 구세주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
리 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에 고
대하는 기다림의 시기이다.

대림절의 의미

대림이란 라틴어 'Adventus'의 번역
어로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의
끝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
리는 시기를 뜻하는 말이다. 대림
절은 예수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옛날에는 강림절(降臨節)이라고도
불렸다. 교회의 전례 상으로 볼 때
대림절은 세 가지 의미를 띠고 있
다. 첫째,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
스도의 성탄을 기다림. 둘째, 세상
의 끝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준비. 셋째, 그리스도
의 재림을 위해 우리 스스로 마음
의 준비를 갖추는 시기이다.

서방 교회의 대림절 첫날은 성 안

드레아 축일(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이었으나, 동방 교
회에서는 좀 더 빠른 11월 중순부
터 이 절기가 시작된다. 대림주일
(主日), 즉 대림절이 시작되는 일요
일은 교회력(教會曆), 즉 전례주년
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대림절의 역사

로마 교회에서는 6세기 후반에 대
림절이 강조되었으나, 이미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방과 스페인에
서 4세기 말과 5세기에 이르러 성
탄 축제를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를 준비하는 3주에서 6
주의 기간이 점차 성탄 전 중요한
절기로 인정받게 되었다. 로마에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주요 절기로,
그레고리오 교황(재위: 590~604)
시대에 나타났으며 4주간의 절기
가 정착되었다.

초기에는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
에서 고대하는 기간이었지만, 중
세에는 재림을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공포와 속죄로 맞는 절기
로 지내기도 했다. 종교 개혁 후에
는 성탄축일을 기쁨 중에 기다리면
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끝
날에 주님이 영광중에 돌아오실 것

을 기다리는 절기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다.

주님의교회의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동
안, 주님의교회에는 성탄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우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
월 13일에는 주님의 교회 새생명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겨자씨와
함께 하는 새생명축제"라는 이름
으로 전도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겨자씨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
비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예년
과는 달리, 올해에는 대상자 카드
에 이름을 적어 제출하면, 대상자
에게 전달할 초대선물과 초대장을
교회에서 제공한다.

초청당일 12월 13일에는 먼저 3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후에 1층
제3집회실에는 새 생명을 위한 찬
양, 연주, 목사님과의 만남 등 다양
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풍성한
다과와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 준비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밖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
탄 가족예배, 성탄축하 음악회 등이
준비되어 대림절의 기쁨을 함께 할
예정이다.

함줄함울

사역박람회

성도 196명 사역 신청

11월 한달 동안 펼쳐진 사역박람회 결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2015년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22일까지의 접수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목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섬김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교회 내부 사역팀에 신청한 성도는 19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사역 신청을 한 196명을 출석 교인 약 7천명에 대비해 본다면 약 2.8%이다. 신청자들의 이름 가운데에는 현재 다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볼 때, 사역박람회를 진행했던 많은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참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번 사역박람회에서는 겨자씨 단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월드비전, 기아대책본부, 결핵제로운동, 애란원 등 외부의 여러 엔지오 기구들이 참여한 바 있다. 많은 겨자씨에서 이 기구들의 사역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베풀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사역박람회’의 본질일

사역 신청 현황

위원회	분과	신청인원
목양위원회	예배분과	21
	음악분과	24
	소그룹분과	2
	2030	1
	양육분과	13
	미디어분과	2
교육위원회	EM분과	10
섬김위원회	봉사분과	16
	복지분과	37
	문화스포츠선교분과	3
	국내선교분과	18
	통일선교분과	21
	해외선교분과	26
특별위원회	청소년사역원	2
계		196

터이다.

사역 신청자들과 팀장들이 만나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유하

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하는 만남의 장이 11월 29일 펼쳐질 예정이다.

함줄함울

성탄축하음악예배

2015년 성탄축하음악예배가 2015년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진다.

이날 박원호 담임목사의 설교와 축도 후에 펼쳐지는 음악 예배는 테너 솔로 권화평의 “거룩한 성”, 시온 남성 복사중창의 “노엘 노엘의 크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네”, 소프라노 솔로 이해정의 “거룩한 밤”, 시온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 “사랑의 왕”이 연주될 예정이다.



“사랑의 왕”은 로저 스트레이더 작곡의 칸타타로, ‘서곡’, ‘사랑의 왕’, ‘보라 주 은혜 받은 자여!’, ‘복된 이름’, ‘죄인들의 구세주’, ‘של 방이 없네’, ‘잘 자라 거룩한 아기’, ‘하나님께 영광’, ‘알렐루아 동방박사들이 노래하네’, ‘온 세상 기뻐하여라’, ‘사랑의 왕’,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이땅에 오시는 과정을 칸타타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많은 국내외 교회와 음악계에 서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2

聖幕器具 (성막기구)中

燔祭壇(번제 단, altar to burnt incense)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출애굽기 40장 29)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燔祭(번제)는 짐승의 고기를 구워 바치는 제사.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이다. 소제(素祭), 화목제

(和睦祭), 속건제(贖愆祭), 속죄제(贖罪祭)와 더불어 구약시대 5대(大)제사 중 하나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제사이다.

1. 특징 : 인간적 신분의 조건을 불리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며,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다.
2. 예배 자가 할 일 : 안수 → 가죽 벗기기 → 각 뜨기 →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기인데 예배에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3. 제사장이 할 일 : 피 뿌리기 → 나무 벌려놓기 → 고기 태우기 뿐으로 예배의 주체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백성임을 암시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燔(구울 번, 지질 번) :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는 火(불 화)와 ‘순

서’를 나타내는 番(차례 번)을 결합하여 ‘불 위에 올린 고기를 차례대로 뒤집으며 굽는다’라는 의미가 된다.

★祭(제사 제) : ‘고기’를 상징하는 肉(월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壇(단 단, 제단 단) : ‘흙이나 땅’을 대표하는 土(흙 토, 땅 토)에 ‘크고 높음’의 상징인 亯(클 단, 높을 단)을 결합시켜 ‘흙으로 돌아가면서 높이 쌓아올린 구조물이 제단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신은 높은 곳에 계시므로 산이나 높은 인공구조물에서 제사한 것이 기원이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7



장애우 모여 함께 드리는 사랑나무 예배 찬양과 율동 쉽지 않아도 정말 예쁘게 따라 하는 아이들 위해 늘 즐겁게 반주하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목회칼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1. 약속의 9회

지난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WBSC프리미어12’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4-3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8회까지 1안타 무득점에 그치며 0-3으로 패색이 짙었으나, 9회 4득점을 올리며 일본의 안방에서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국은 미국과의 결승전에서도 8-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결승을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아마 8회 말까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었을 것이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성경의 8회 말 인물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8회 말까지 무득점 패로 인생경기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생을 형에게 쫓겨 다니며 삼촌에게 부림 당하고 아끼는 아들까지 잃었던 야곱이 그렇고, 한순간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모두를 잃은 욥,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8회 말까지 이들의 스코어는 모두 0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원자는 없다고 말할 그때에 바로 역사는 시작됩니다.

3. 가을을 지나 겨울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지났지만 두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는데 세월의 무상함에 덧없음을 느끼십니까?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코앞까지 왔음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이제 막 8회가 끝났을 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어느새 다 지나고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만이 남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이는 세상에 더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며, 목숨을 쫓기던 이는 가장 사랑받은 자가 되고, 죽었던 이가 세상의 통치자로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동일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차례입니다!

이제 2015년의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9회를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그리하여 역전패 아닌 역전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대환 목사 / 7교구, 4부찬양, 봉사위원회

사역간증

어와나 불티단 성경퀴즈대회를 마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일부분을 7살짜리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씀을 한글자씩 쓰고 있었습니다. 일년동안 한글도 모르는 채 시작한 말씀암송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고 되었고 한 글자씩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감동...

8년전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불티단에 입단시킬 때 말씀암송을 한 주에 한절이상씩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암송을 할 때도 힘겹게 하곤 했기에 매주 새로운 말씀을 암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쯤 아이가 바뀌더군요. 한주에 2개씩 외우겠다고요. 신기한 일이었죠. 유치원에 매일 어와나 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였고 너털너털해진 책 때문에 나중엔 암송구절을 써서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성경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할 때는 노래로 암송하도록 도와주었고 조금 커서는 함께 성경책을 읽으며 암송구절 앞뒤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점은 엄마인 제가 먼저 암송을 할 때쯤 아이도 암송하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암송의 매력에 빠져서 세 아이를 모두 어와나에 보내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맡은 아이들에게 느꼈던건 아이들이 무지개와 같다는 것이었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암송의 매력을 빨리 느끼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친구도 있었고 느리게느리게 말씀을 암송하지만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한글자도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도 있었죠. 교사로서 이 모든 친구들이 다소 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암송한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한 두개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성장통인 사춘기와 어른이 되어 세상의 풍파를 겪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길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길 기도합니다.

정경화 집사 / 어와나 불티단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24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2)

일제의 교육령 공포

한국에 사립학교가 폭발적으로 생겨난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이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교육이라는 의식으로 학교들이 세워지며 청년 학도의 민족의식과 애국열을 고취하자 통감부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섰다. 우리학교는 이 교육령에 따라 1909년 ‘眞信女學校’로 개칭을 하였다.

일제의 강점기에 들어서자 1911년 8월 23일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소학교는 보통학교로(제8조),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이름을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명칭을 바꾸고(제11조, 제15조), 교과목에 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며(제29조), 전문학교 입학 자격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제28조)했다.

이 교육령은 한국인을 모두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臣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일본어 교육을 강조하여 보통학교 1학년부터 조선어 및 한문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하여 일본어로 교수케 하였다. 고등보통학교도 조선어 및 한문이

주당 3~4시간인 것에 비해, 일본어는 7~8시간으로 배정하였다.

교육상 차별은 보통교육기관의 명칭에서도 드러났다. 일본의 학제가 초등교육기관에 ‘소학교’라는 명칭을 붙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데 비해,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보통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그 자체를 정규교육의 완성으로 설정하였다.

학제는 소학교 4년, 중학 4년, 전문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 학제(學制)였다. 이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 6년으로 이루



1909년 정신여학교 제3회 졸업생

어진 일본의 학제와 비교할 때 무려 3년에서 6년이 단축된 제도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고등교육을 두지 않았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추수감사절 영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Thanksgiv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lidays in America. That's because it involves two of Americans' favorite things: family and food. The day before Thanksgiving is the busiest travel day of the year as people across the country return home to be with family and share a Thanksgiving meal together.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가족(family) 그리고 음식(food)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은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날입니다.

I like to think of the PCL English Ministry as a large extended family. As such, on Sunday, November 22, members of the English Ministry family celebrated American Thanksgiving with a fellowship meal after the worship service. As Thanksgiving in America brings together family from across the country, here at PCL Thanksgiving brought together people from throughout the English Ministry, including the worship service, the children's ministry, and the Saturday Korean class.

저는 주님의교회 영어부 성도님들이 저의 큰 대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2일 주일 영어부 가족들은 미국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 지방 곳곳에 흩어진 가족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처럼 주님의교회 추수감사절 또한 영어부 가족(성인 영어예배, 어린이 영어예배, 토요일 한글학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About fifty people gathered in the first-floor classroom 3 for a traditional Thanksgiving meal of salad, mashed potatoes, stuffing, corn, cranberry sauce, pumpkin pie, and of course, turkey. Although rare in Korea, turkey is the centerpiece of the American Thanksgiving meal. The turkey, along with all the side dishes and dessert, was brought in from the American Army base in Yongsan.

50여명 정도가 교회 1층 제3 집회실에서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샐러드, 으깬 감자, 스터핑, 옥수수, 크랜베리 소스, 호박 파이, 그리고 당연히 빼 놓을 수 없는 칠면조.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기 힘든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식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칠면조는 다른 사이드 메뉴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에서 왔습니다.

There was an abundance of food and plenty of leftovers as well. But in addition to the food, there was also an abundance of smiles and laughter. People may have sat down to the meal as strangers, but they left as friends. During the meal, one person was overheard saying,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Indeed, we should, there is always reason to be thankful.

음식은 풍성했고 남은 음식도 많았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미소와 웃음도 풍성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식탁에 낯선 사이로 앉았지만, 집에는 친구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더 자주 그래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슈나이더 목사 / 영어예배팀 번역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사역소식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한 부모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열렸습니다. 이번에 어린이교육목회원에서 열린 부모기도회는 “자녀를 안고 하나님께 안기다”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10월17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별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자녀를 따르는가’,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 조화시키기’, ‘단조롭고 고달픈 생활에 매여 있을 때’,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기가 있는가’라는 4가지 주제로 예배와 설교, 나눔과 기도가 풍성했습니다. 어린이부서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이 밴드와 찬양팀, 탁아, 설교, 부모와 함께 하는 나눔 인도, 기도인도로 함께 섬겨서 더욱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녀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고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보영 목사

 **아기나들이**


김하연 아기

2015년 8월 30일생

1. 우리 가족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길
2. 우리 가족의 영과 육이 건강하길
3. 하연이를 잘 양육하도록 주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길

아빠 김상균/엄마 김민주, 2015년 11월 15일 3부 예배



백건우 아기

2015년 7월 30일생

1.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2. 정직하고 꾸밈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3. 양육에 있어 욕심과 절제를 잘 다스리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빠 백준수/엄마 이성경, 2015년 11월 15일 3부예배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글함글은 올해 창립27주년을 맞아,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다섯 호에 걸쳐, ❶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❷ 교회사회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❸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❹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❺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팎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❻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올해 마지막 호인 358호(12월 2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주님의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지 5매 내외의 분량으로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